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석희진 원장 취임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이하 기준원)은 지난 10월 20일 기준원 8층 대회의실에서 제2대 원장인 석희진 원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석희진 원장은 1975년부터 2009년 6월까지 34년 동안 농축산분야의 다방면에서 정책 등을 담당하였으며, 특히 농식품부 축산물위생과장과 축산물 정책팀장 등을 역임하면서 축산 정책, 축산물 위생과 안전성 분야에 특별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석희진 원장

농림수산식품부

겨울철새 유입에 따른 AI 방역대책 추진강화

정부는 지난 10월 16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AI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겨울철새 도래로 AI 유입 위험성이 증가되어 AI 재발방지를 위한 방역대책 추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내 AI 발생(3차례)은 철새에 의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최근 AI 발생국가(중국 등)는 국내로 유입되는 겨울철새 이동경로에 위치하고 있어 철새에 의한 AI 유입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능동적 사전예찰 중심의 AI 상시방역 체계를 '08년 7월부터 구축하여 연중 상시예찰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AI 유입 위험성이 증가된 상황에서 방역태세 확립을 위한 방역기관별 'AI 방역대책 상황실' 설치 운영, 발생 위험 최소화를 위한 예

찰검사 확대 및 축산농가의 차단방역 강화 등 더욱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계란산업발전대책연구회

이상란을 없애는 것이 급선무



계란산업발전대책연구회(위원장 이상호)는 지난 10월 20일 본회 회의실에서 첫 유통분과위원회 분과회의를 개최하고 미세한 금이 간 파란이나 난각탈색, 혈반 등이 섞인 이상란이 시장에 유통되면서 계란에 대한 좋지 않은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이상란을 계란시장으로부터 격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농장이나 집하장에 파란이나 오란이 발생할 경우 가공장으로 이동을 제도화하고 이를 위한 가공장 건설과 기존 가공장의 규모화 등을 건의키로 했다. 한편 부화기에서 수정이 안된 무정란이 식란으로 둔갑·유통되는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계란소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부화업자들의 무정란 유통을 금지하는 방법을 강구키로 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업경제·축산경제 통합 반대 기자회견 개최

축산관련단체, 축산관련학회, 축협 대표자들로 구



축산업 생존권 말살하는

농업/축산경제 통합 반대 범축산인 공동기자

성된 '축산업 생존을 위한 공동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이승호 축단협 회장)는 지난 10월 15일 농협중앙회 본점 앞에서 '축산업 생존권을 말살하는 농업경제·축산경제 통합반대 범축산인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축산 대표자들은 FTA, 사료값, 경기불황을 비롯한 대내외 악재들로 축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농협 사업구조개편 논의과정에서의 축산업의 독립성과 전문성 훼손과 농업경제·축산경제 통합 움직임에 대해 크게 반발하면서, 축산업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이를 저지하는 투쟁에 적극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이승호 비대위 상임위원장은 그동안 농협 사업구조개편 과정에서 축산인들은 축산업의 독립성 보장을 상징하는 농협 축산경제의 존치를 강력히 요구해 왔으나, 이를 무시하고 농협중앙회 이사회가 농업경제·축산경제 통합 내용을 포함하는 농협 사업구조개편안을 밀어붙이기식으로 통과하려고 하고 있다며 앞으로 범축산인들이 결집하여 강도 높은 저지투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농협중앙회는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농업경제·축산경제 통합을 포함하는 사업구조개편안을 이사회에서 통과시켰으며, 이 같은 내용을 10월말로 예정된 대의원대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건의

할 계획으로 알려져, 축산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농협사료, 사료가격 7.9% 인하

농협은 지난 10월 17일부터 사료가격을 평균 7.9% 인하했다. 지난 8월 6일 6.4%를 인하한 데 이어 올 들어 다섯 번째 인하한 것으로 총 28%를 인하한 것이다. 큰 소 비육 사료의 경우 1포대(25Kg 기준)가 10,800원 에서 9,925으로 8.1%가량 인하된다.

농협 관계자는 "최근 환율 상황을 감안하여 축산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료가격을 과감히 인하했으며, 앞으로도 인하요인 발생할 때마다 가격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은 지난 8월에도 사료업계에서 가장 먼저 가격을 6.4% 인하해 사료업체의 가격인하를 유도했으나, 가금류 사료는 인하폭이 미미하거나 아예 인하되지 않아서 원성을 사기도 했다.

국립축산과학원

대형 닭고기 생산으로 가슴살 수요 해결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원장 라승용)은 부분육 생산이 많은 대형 닭고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1993년부터 대형육계 생산 연구를 시작하여 대형육계 생산기술을 정립하고 이러한 기술을 조기에 보급 하기위하

여 지난 9월 29일 김제에서 현장 평가회를 개최했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닭고기는 대부분 32~35일령의 육계를 도계한 것으로 도체 무게가 1kg 전후로 부분육 생산이 어렵지만, 대형육계는 출하일령이 42~49일, 생체 무게가 2.5~2.8kg로 살코기 생산이 급격히 증가하며 맛 인자인 글루타민산(Glutamic acid), 이노신산(Inocinic acid) 등이 많아 맛이 좋고 고기가 쫄깃하다. 특히, 대형육계 생산시 부분육 생산이 가능하고 가슴살 생산량이 많으며 입추시 병아리에 대한 가격 부담이 낮아져 경영비도 크게 절감된다.

농진청에서 10여년의 연구를 토대로 정립한 대형육계 생산 핵심기술은 환기 시설이 설치된 유창 또는 무창계사 등 완전계사에서 사육해야하며 사육밀도는 출하체중을 기준으로 m²당 15수로 준수해야한다. 병아리는 암·수를 분리 사육하여 암컷은 1.5kg 내외에서 출하하고 수컷은 대형 닭으로 출하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라승용 원장은 “선진 외국은 이미 대형닭고기 위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가슴육 등 부분육의 수요를 충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형닭 생산이 필요하다”며 그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대형육계 생산 체계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닭 난계대 질병 현장연구 강화해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이주호)은 지난 9월 25일 분야별 협의체 가금분야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문제되고 있는 현안 질병의 피해저감을 위



한 대응연구방안을 협의했다.

가금분야 전문가 협의회에서는 닭아데노바이러스, 살모넬라감염증, 닭마이코플라스마감염증 등 최근 야외에서 문제되고 있는 난계대 질병에 대한 대응연구 방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최근 일부 지역의 육계에서 다발하고 있는 닭 아데노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한 실태 조사와 질병피해 저감을 위한 제한적 백신적용 연구 ▲살모넬라감염증은 식품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질병 중 하나로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국가모니터링 검사 체계구축과 대응연구를 지속적으로 강화 ▲최근 마이코플라스마 갈리셉티쿰(MG) 발생은 줄어들고, 마이코플라스마 시노비아에(MS) 발생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모니터링 검사방안과 백신개발 또는 적용 등의 대응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용인 토종닭 폐사는 LPAI, 마이코플라스마병과 회충증으로 복합진단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9월 15일 의뢰된 경기도 용인의 토종닭은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마이코플라스마병 및 회충증에 의한 복합감염으로 폐

사하였다고 밝혔다. 감염된 토종닭은 침울, 졸음, 폐사 등의 주요 임상증상을 나타냈으며 최초 발병 후 약 3일 동안 100수 정도의 폐사를 보였으며 현재까지 4,000수 사육에 500수 정도가 폐사되었다.

국가가축방역사업(조류인플루엔자 예찰사업)에서 확인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LPAI)는 8월 현재까지 종오리와 육용오리 및 재래시장에서 검색한 총 1,922농가(개소)중 137건이 확인되어 방역 조치되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가축전염병 발생 시 초동 대응태세 '이상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배상호)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 초동방역팀이 즉각 출동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조기 근절하기 위하여 가상훈련을 강도 높게 실시, 완벽한 초동방역태세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초동방역팀 투입명령을 접수받은 후 임무수행절차에 따라 ▲초동방역물자세트 구비 및 설치·가동 ▲농장주에게 초동방역팀 역할 소개 및 농장협조 당부 ▲개인 및 차량 소독 실시 ▲무인통제소 및 통제초소 설치 운영 ▲농장진입로 소독 ▲역학조사 실시 ▲상황종료 시 철수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정확히 수행하는지에 대하여 검증·보완하는 기회가 됐다.

2009대전국제축산박람회(KISTOCK)

개최결과 최종 보고회 개최



2009대전국제축산박람회(KISTOCK)추진위원회(위원장 장동일)는 지난 22일 코엑스(COEX) 308호실에서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신종플루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보완된 시설과 주차장 완비 등을 바탕으로 186개업체 719개 부스(해외 11개 업체, 12개부스)가 참여한 가운데 10만여명의 참관객을 동원해 성공적인 대회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날 대회 협찬업체(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대전시)에 감사패 전달식이 있었고, 자원봉사자 등을 파견하여 임무를 수행한 신구대학교와 충남대학교에 장학금 전달식도 거행되었다. 또한 이번 박람회를 위해 힘쓴 각 주관단체 실무자들에게도 감사장이 전달되었다.

차기 박람회는 상설기구인 사무국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해외바이어 유치는 물론 박람회의 연계성을 위해 유리하다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공동주관단체장들이 모인 가운데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